



담당 부서: 서울디지털재단 스마트포용팀	스마트사업본부장		주성환	02-570-4612
	스마트포용팀장		노희숙	02-570-4650
	담당자	사업운영	이호연	02-570-4657
		언론홍보	유채란	02-570-4625
사진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쪽수: 3쪽		관련 누리집 (메뉴)		

**서울디지털재단-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, 시각장애인 디지털 역량강화 '맞손'**

- 6.20.(목) 15시,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「디지털 역량강화 위한 업무협약」 체결  
 - 시각장애인 대상 1대1 디지털 교육, 전문 강사 인력 고정 파견...7.9.부터 강의 열려  
 - 재단, 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통해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첫걸음 위해 촘촘히 지원할 것”

- ‘디지털 사각지대 없는 서울 만들기’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시각장애인들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나섰다.
- 서울디지털재단(이사장 강요식)은 20일(목) 오후 3시 서울 실로암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, 김미경 서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(관악구 소재)은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의 산하 기관으로,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, 신규 사업인 디지털 튜터링 교실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춘 시각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-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기관에 디지털 전문 강사를 고정 파견하는 데 있어, 양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협약의 주요 내용은 ▲시각장애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 ▲시각장애인의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각장애인 교육 자료 제공 등이다.
- 협약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 소속 강사들은 본격적인 파견 전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다.
-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장소를 제공한다. 오는 7월 9일(화)부터 복지관 내 교육장, 강의실 등을 활용해 1대1 스마트폰 강의 등 본격적인 강좌가 열린다.
  - 강사진은 매주 화요일, 금요일 이틀간 7명이 파견될 예정이며 올해 파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총 114명의 시각장애인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파견을 진행한다.
-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“디지털 사각지대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계층과 밀접한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”며 “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세상으로의 첫걸음을 위해 촘촘한 지원을 펼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사업인 ‘어디나지원단’을 2019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, 올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복지관, 경로당 등을 연계한 100개소 이상 교육장에서 서울시민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.



사진1.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(왼쪽)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(오른쪽)이 업무협약서 서명을 완료했다.



사진2. 서울디지털재단-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업무협약식에서 임직원들이 단체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(왼쪽에서 네 번째 재단 강요식 이사장, 다섯 번째 복지관 김미경 관장)